

TRANS- HUMANITIES

Title :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용산 성매매 집결지 중·노년층 여성의
이주 체험을 중심으로

**Between Invisible Boundaries: Focusing on the Migrant
Experience of Middle- and Older-Aged Women of Yongsan
Red-Light District**

Author(s) : 원미혜 (WON Mi-Hae)

Source : *Trans-Humanities*, Vol. 7 No. 2 (2014), pp. 233–271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용산 성매매 집결지 중·노년층 여성의 이주 체험을 중심으로¹

원미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I. 들어가는 말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² 특히 서울시 용산역 앞 성매매 지역은 대대적인 개발분의 영향으로 집결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철거 절차에 돌입하여 이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사라진 이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성들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본 연구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이주 체험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성판매 일을 하던 여성이 다른 공간으로 이주하여 겪는 체험을 본격적

-
1.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글에 대해 귀한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사나’ ‘전업’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을 녹여낼 수 있는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공간의 관계와 문화적 역학, 그리고 경계의 차이를 좀더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경계’란, 사회적 위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stigma), 계급적 사회문화적 구별짓기 등을 포괄하며, 본문에서는 ‘경계’라는 용어와 함께 낙인(사회적 시선, 인식, 호명), 거리감, 구별짓기 등의 표현을 병행하고자 한다.
 2.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35개 지역(1,696개 업소)에서 2011년 26개 지역(726개 업소)로 줄어들었다(재인용. 경찰청, 한겨레 2014. 4.14). 용산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2005년 6월 현재) 약102개 정도 업소가 있었는데, 2005년부터 철거계획이 시작되어 2013년에는 모든 업소가 철거되었다(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붉은 벨벳』).

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나 ‘자활’ 또는 재유입 방지 등을 주제로 한 탈성매매 지원정책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공간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의 가장 큰 취약점은 탈성매매라는 뚜렷한 목표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원의 성과와 필요성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정한 프레임에서는 여성들의 이주체험이 갖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현상들, 정서적 갈등 등의 문제들을 섬세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들의 체험에 녹아있는 사회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개별 여성들을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성급하게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자활,’ ‘지원,’ ‘정책,’ 연구라는 특정 프레임 속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체험은 구조적으로 누락되거나 과편화되고 있다. 지원이라는 선의(善意)의 목적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러한 연구물들에서 상정되는 성판매 경험 여성은 ‘결핍되고, 사회 적응능력이 부족한, 지원의 대상’으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타자화된다.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는, ‘주류’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을 당연시하고, 나아가 낙인을 더욱 강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물리적 공간이나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낯선 공간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적응과 사회 통합에는 귀속감과 같은 정체성의 정서적 차원, 공동체와 관계들, 문화적 차이, 과거 체험의 현재적 의미 등이 중요하게 개입된다. 이것은 탈성매매 여성들이 집결지에 머물거나 새로운 공간을 찾아 살게 되는 원인이 단지 합리적 목적이나 내면화된 규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결지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체험과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면서 가장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

정'과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탈성매매 여성의 현재 체험을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특정한 국면만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판매 여성에 대한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계 짓기와 계급·교육정도·섹슈얼리티 등의 개인적 차이 등도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이들의 차이를 동질화시키지 않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차이'와 '과정'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집결지를 떠난 여성들의 삶과 체험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즉, 성매매 집결지를 떠나 '가정 동네'로 이주한 중·노년층 여성들이 자신의 이주 체험을 과거와의 연속성 안에서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새로운 공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가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구별 짓기가 보이지 않는 경계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그 경계를 넘어 여성들 스스로가 상호교류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삶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제3의 공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용산 성매매 집결지에서 상당기간(10~30년) 살아온 중·노년 여성의 구술 생애사 자료를 주된 분석 자료로 한다. '중·노년층 여성'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문화적 습속과 사회적 경계를 좀 더 극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집결지에 머문 시간의 축적에 따라 문화적 차이, 타자화된 정체성 문제 등이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집한 것이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³ '차이'와 '과정'에 주

3. 본 연구의 구술자료는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막달레나 공동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집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성판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활동가 양성프로그램'(2002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2005-08년), '기억의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2008-11년), '판도라' 사진모임(2009-13년) 등의 활동과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기억의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30명의 생애사 구술 자료를 수집했으며, 구술 자료는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지면 관계상 각 생애사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며, 이중 5명의 생애사 자료를 소개했다(부록1 참조). 본 연구

목하여 이주 체험의 의미와 적응과정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의 관찰이 필요하다.

표 1 생애사례 사항⁴

사례명 (나이, '13년 현재)	학력 (성매매 시작 나이)	성매매 유입경로	집결지 거주	2002-3년 현재	2008-9년 현재	2013년 12월 현재	탈성매매 (계기)	용산에서 떠난 시기
정미화 (58)	초교 중퇴(17)	가출, 여관 주인의 권고	약 15년	성관매 '일' (독장사)	동거(3년), 장사 (노점 등)	동거, 호프집 등 아르바이트	2006년 (장사)	2006년
박금자 (64)	중학교 중퇴(19)	가출 후 스스로 찾아감	약 15년	성관매/결혼 집결지 내 거주	사실혼 (10년), 공공근로 등	사실혼 (14년) 아르바이트	2004년 (사실혼)	2010년
황혜숙 (56)	중학교 중퇴(19)	가출, 인신 매매	약 15년	결혼 직후 근처 거주	결혼(6년), 무직	결혼(10년), 전업주부	2003년 (결혼)	2003년 2006년
백경옥 (56)	대학 중퇴(27)	취업 사기	약 20년	성관매 '일' (독장사)	쉽터생활 관리사취직 (2년)	동거(2년), 포장마차 운영	2008년 (취업)	2011년
고연주 (58)	초교 중퇴(17)	가출, 남자친구 소개	약 30년	성관매 '일' (독장사)	결혼(4년), 공공근로	이혼 후 재결합(8년), 아르바이트	2005년 (결혼)	2007년

에서 칭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 분석한 5명의 생애사례와 더불어 30명 전원을 포괄하며, 5명의 사례만을 지칭할 때는 '생애사례'라고 명명한다. 이들의 인터뷰 자료는 주로 2008-10년에 수집된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수집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인터뷰는 주로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막달레나 공동체' 쉽터, 또는 카페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균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밖에도 함께 참여한 워크샵, 여행, 정기모임, 행사, 연구 참여자의 일상 공간(일, 유희, 생활)방문 등을 통한 참여관찰을 포함하여, 언어화된 인터뷰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4. [부록1] 생애사례 참조.

II. 기존 논의 검토

성매매 공간을 떠난 여성들의 체험은 주로 사회 복귀나 자활, 전업, 재유입 방지, 탈성매매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물들에서 다루어져 왔다(이하 '자활 연구'). 이러한 연구들은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지원정책의 확장과 더불어 사회복지학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였는데(원미혜),⁵ 대부분 성매매 방지법에 기반 한 관점, 즉 탈성매매라는 명확한 목표 의식과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의 계기와 조건, 생활과 의식의 변화, 자활이 어려운 이유 등을 분석하고 있다(황정임; 우순열; 이근무·유은주; 김인숙; 이인숙; 정경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현주와 황경란의 연구는 집결지 여성들의 체험을 통해 자활지원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성판매 '일'을 그만둔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심리적 치유와 지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활정책 중심의 프레임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먼저, 성매매 공간에서의 체험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체험을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현선, 김소연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의 연구들이, 성판매 여성들은 자존감이 낮고 성매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보고한다. 정확한 요인에 대한 물음이나 다른 집단과의 비교 등 면밀한 분석도 없이, 성매매 자

5. 성매매 연구는 사회적 이슈화가 진행된 2000년대 들어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예를 들어,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1960-90년대까지 지난 40년 동안의 연구를 모두 합친 것(74개) 보다 2000년대 들어 7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107개)가 더 많다. 연구 분야는 법/정책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복지학, 보건/의료, 신학, 교육, 여성학, 사회학 등의 순이다(원미혜, 「성판매 여성」 205). 한편, 자활관련 연구에는 탈성매매 이후 자활과정의 경험을 다룬 연구 이외에도 자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 지표개발, 성과, 연구, 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대안, 지원정책 분석 및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 등이 있다.

체를 부정적 경험으로 치유를 요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공간’과 ‘일반 사회’를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관점에서 가르고, 여성들의 심리와 상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며, 나아가 여성의 체험을 왜곡할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많은 자활연구들이 성판매 여성들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별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갈등이나 정서적 차원의 문제, 공동체/집단적 문화 등 좀 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은 생략되고 누락되고 있다. 즉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념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 없이, 당사자들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초점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듯, 자활연구들은 성판매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정당성과 선의에도 불구하고, 성판매를 경험한 여성을 무력하고 문제를 지닌 집단으로 이미지화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성매매 공간이 다른 ‘사회적’ 공간과 확연한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판매 여성들에게 집결지는 자신의 역사에서 무조건 부정되거나 유리될 수 없는 생활세계이다.⁶ 이들에게 성매매 공간은 착취와 폭력을 경험하고 탈주를 꿈꾸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안에서 일과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삶의 자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11-26). 두 공간 사이에서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상당히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⁷ 낙인 관련 연구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회적

6.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에서는 용산 집결지 폐쇄를 앞둔 시점에서 집결지 여성들의 생애사 구술 연구(2007, 2008)를 통해 여성들의 체험을 풍부하고도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여성이론문화연구소는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집결지 폐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면서 여성들의 주거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성매매 입장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물들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공간의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7. 송관재 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자, 동성애자, 전과자 등 12개의 낙인보유집단(stigmatized

낙인을 지각할수록, 자기개념, 자존감, 사회적 지지망, 대인관계 및 기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낙인은 빈곤, 우울증 등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취업, 결혼 등에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이무석; 함병주 외). 그러나 낙인의 작용은 고정된 것도, 모든 시공간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간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변형되고 재구성된다(발렌타인; Hubbard). 원미혜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낙인의 영향력은 나이 들에 따라 성매매 공간 밖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낙인은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누적될 때 빈곤화를 초래하고 자신의 삶을 특정한 공간과 관계에 한정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김미현은 타자와 타자의 차이에 주목하여 타자가 동질화되거나 양극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연구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와 협상 및 갈등, 개별적 차이의 존재 등을 드러내며 타자의 체험이 획일화되거나 전제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판매 여성들이 집결지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은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경유한다. 삶의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특정한 프레임에 갇혀 체험과 역사를 단순화, 과편화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 낙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생애사 재구성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들의 현재 문제들을 생애사적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성판매를 경험한 여성의 생애사 자료를 토대로 차이와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 따라 또는 시공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경험의 단편들로 구성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group)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거리감을 조사하였는데, 성판매 여성은 12개 낙인집단 중 두 번째로 먼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Ⅲ. 보이지 않는 ‘디아스포라’⁸: 낯선 곳에서의 적응

1. “티 나지 않게”: 적응의 어려움과 대응 전략

성매매방지법을 전후로 단속이 강화되고 지역개발에 따른 집결지 폐쇄가 현실화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차츰 집결지를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주했다. 집결지에서 떠난 이들은 서울의 타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창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근로, 식당 또는 호프집 아르바이트, 장사 등의 일을 하거나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상당기간(10-30년)을 집결지를 준거지 삼아 살아온 이들의 ‘이주’는 단지 일이나 주거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생활세계 전반을 바꾸는 변혁(transformation)의 사건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게 있어 집결지 밖의 문화적 차이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 집결지 골목입구마다 설치된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대형표시가 알려주는 공간적 경계만큼이나 외부와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밤 영업 등으로 인한 생활 리듬의 차이, 친분관계, 여가와 놀이, 이용 가능한 자원, 경험의 축적, 정체성, 가치관 등 일상을 주조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외부와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며 수 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중·노년의 나이가 되어 생활세계를 바꾼 연구 참여자들이 봉착한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이 들과 빈곤으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주류’ 사회의 적응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17세에 성매매 집결지에 들어와서 약 30년 동안 살아온 고연주씨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한 동안 “8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생

8. 디아스포라(diaspora)란 본래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각지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서경석 14). 본 논문에서는 수십 년 간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이주한 성판매 여성들의 낯선 땅에서의 존재감과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각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여기 [성매매집결지] 나가서, 어, 집은 이사 가서 좋은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 뭐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 배움도 없지, 나이는 먹었지, (중략: 공공근로 일이 힘들었던 이야기 4줄) 이제 그, 그러면 내가 과연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 그 옆에 사는 집도, 내가 그냥 가정주부지만 알겠지, 그거 모르지. 그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 살아가는 거. 어떻게, 겁나는 거 있잖아.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를 해야 되나? (고연주, 2008년 “인터뷰”)

인터뷰 당시(2008년) 고연주씨는 결혼 후 성매매 집결지 지하방에서 살다가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를 간 지 석 달이 된 시점이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공공근로를 하다가 식당에 취직해서 “밥을 굶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있음을 고백한다. 위 단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를 해야 하는가?”라는 반복된 질문은 구술자의 막막함을 표현한다. 스스로 “배움이 적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만 살아와서,” “남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한 공간에서는 자신을 “그냥 가정주부인줄만 안다”고 인식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구술자의 태도는 2002년부터 연구자가 보아온 매사에 적극적이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집결지에서는 ‘사랑스런 연주씨,’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지랖 넓고,” 배려적이며, 악착같은 정도로 생활력 강한 모습과 “누가 뭐래도 내 하고 싶은 대로하는” 기질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식당, 공공근로 등 일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없이 사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술을 먹어도” (“문화적으로) 뭔가가 안 통하고 답답하

다”고 하소연 한다. 평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구술자이지만 집결지에서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학력 낙인을 더욱 두드러지게 느끼면서, 낮은 곳에서의 무력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살아온 주된 경력에 대해 입을 봉해야 하는 곳에서의 미래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형상화되고 있다.⁹⁾

현재 연구 참여자들이 봉착한 문제들은 수몰지역 이주민들이나 다른 소외계층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가 알아볼까’하는 두려움과 함께, 스스로에게 배어있는 습관이 ‘티가 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을 갖는다. 여기서 ‘티’란, 흡연, 욕설, 입에 뱀 말투, 화장법이나 옷차림, 놀이문화(술, 화투), 취향, 소비패턴, 술을 먹는 방식 등 성산업 공간에서 체현된 일상적인 습관들이다. ‘주류’ 공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전에 쓰던 욕이나 호칭이 불쑥 나오기도 한다. 게다가 출산·양육 경험이나 사회생활 등 ‘일반’ 여성들의 겪었음직한 경험의 부재와 낮은 학력, 계급적 차이 등은 ‘티’를 더욱 가중시킨다. 연구 참여자에게 과거는 곧 ‘모멸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와 ‘통과’(passing)의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들키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지 흡연과 술을 조심한다든가, 옷차림이나 말투, 몸짓, 친구 감추기 등에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친밀성을 위해 대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되도록 말하지 않는’ 전략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9. 고연주씨는 중간소음 때문에 윗집과 남편이 거칠게 싸운 사건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구술자에게는 이웃을 적절히 예의 바르게 대우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실망’과 ‘적응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큰 사건으로 기억된다. 구술자는 ‘가정집 동네’에서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애써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남편은 이러한 구술자의 조심스러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진술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술자의 긴장과 민감성을 엿볼 수 있다.

46세(2003년)에 손님으로 만난 남편(직업군인, 중위)과 결혼한 황혜숙씨의 경우, 이주한 공간에서 주변과의 관계가 결코 녹녹치 않음을 보여준다.

(결혼 직후 군인아파트 생활 이야기 이어서) 관사 사니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같이 어울려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대화 거리가 없어, 단절되는 거야. 왜 여기 [성매매집결지] 살 때는 그냥 욕도 하고 막말하고 ... 이제 그러면서 애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자식을 안 나서 안 키워봤으니까. 또, 신랑이 직장 생활 하는 것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대화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뭘 얘기 하면 듣는 입장이고 ... (황혜숙, 2008년 “인터뷰”)

황혜숙씨는 친밀도가 높은 군인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교류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이를 낳아 기른 적도 없고, 남편의 세계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구술자에게, 대화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단절을 부른다. 위 진술에 이어, 구술자는 대화거리가 없어 “입 딱 봉하고, 듣는 입장”이 되고, “괜히 어울려서 술 먹다가 실수라도 할까봐” 자리를 피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반상회도 고역이라고 진술한다.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고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형성, 상호인정이 중요하다. 친해진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서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내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를 ‘감춘다는 것’은 감추고자하는 기간을 대처할 새로운 이력을 요구받는다. ‘가상의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와 관계 등이 요구되지만, ‘주류’ 사회와 교류가 적을수록 ‘거짓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은 부재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주 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뿌리내리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2. 차이 지우기: 자기 성실성¹⁰의 훼손과 갈등

성판매 ‘일’을 그만둔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그것(“창녀”)이 아니지만, 그것이라고 이름붙이는 외부의 시선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성매매 공간을 떠난 이들에게 ‘성판매 여성’이라는 경력은 “나는 더 이상 그게 아닌데 남들은 그렇게 보는”(황혜숙) 시선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만, “도려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일부이자 “과거를 부정하면 곧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정체성으로부터) 떠날 수도 떠나지 않을 수도 없는”(백경옥) 심리적, 인식론적 공간에 스스로를 위치짓게 한다. 특정한 ‘정체성’이란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 어떤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하려는 무엇의 기능에 의해 정의 되기” 때문이다(발렌타인 379). 성판매 여성을 호명하는 권력의 힘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 내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자신의 과거와 역사가 부정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차이 지우기’, 즉 자신의 이전 체험과 관계들을 무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주류’에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와 과거 지우기는 개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도덕적인 부담감을 안겨준다. 다음의 백경옥씨 인터뷰는 성을 판 여성이라는 오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훼손하게 되는 지를 농도감 있게 표현한다.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이 겪을 고통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나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 또 숨길 수는 없잖아. 모든 게 ... 그것도 두렵고,

10. 자기 성실성(integrity) 개념은 정체성이 하나의 원리로 통합된 자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자아임을 전제로 한다. 자기 성실성은 하나의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함으로써 달성되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합리적 원칙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중적 자아로서의 자기 성실성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허라금 264).

이것도 두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 근데 딱 단절된, 그냥 평범하게 살면, 단절이라고 하기 보다는 잊고 사는 거지. 내가 만약에 평범하게 산다면, 잊고 사는 거지. 나를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잊고 사는 거지, 괜찮을 거 같은데, 다른 삶, 이런 것은 어차피 거짓말, 그래서 결혼은 포기한 거야. 그게 단절이니까, 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한 거고. 단절하기 힘들어서 결국, 나를 영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힘들어서, 남들 속이구서는 할 수 있겠지, 끝까지 비밀이 영원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를 속여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 (백경옥, 2002년 “인터뷰”)

위의 진술에 앞서, 백경옥씨는 ‘에이즈,’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을 빗대어 성판매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족관계가 친밀한 백경옥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도 ‘숨기는 것’도 모두 두려운 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성판매 일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잊고 사는 것’과 역지로 ‘단절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단절이니까 잊고 살 수가 없다”는 의미는, ‘단절’은 곧 자신의 과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잊고 살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표현한다. 과거를 숨기는 것은 단지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된 시간에 대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함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곧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

백경옥씨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은 누군가의 아내, 딸, 지극한 모성을 가진 어머니, 동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다. 자아 정체성은 통합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다중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자기 성실성은 일관적으로 통합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다중적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역량에 의존한다(허라금). 그러나 통념적인 ‘여성 이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정숙한’) ‘주류’ 여성과 ‘성판매 여성(창녀),’ ‘어머니’와 ‘창녀’는 양립될 수

없으며, 그것의 양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거를 숨기는 것은 단지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자발적인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듯 자신의 과거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자신의 역사와 관계와 단절하는 것, 자기기만과 배반을 강제할 수 있다. 이주한 공간에서는 (집결지에서의 관계) 친구, 동료들이 찾아오는 것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이다.¹¹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기배반과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외부와의 교류를 피하고, 익숙한 관계에 집중하며, 긴장하지 않은 개인관계(결혼)를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연구 참여자들은 젊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결혼을 한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거나' 최소한 '동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현 남편들의 가장 큰 미덕으로 꼽히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이나 다른 결함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결함으로 인식하고 이미 자신의 한계를 정해온, 제한된 선택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개별체험들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짓기의 질서와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징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짓기, 외부시선의 강력한 힘은 또한 내재적으로도 작용한다. 사례에 따라서는 낙인상황을 직접 체험한 경우도 있지만,¹²

11. “(집결지에서) 벗어나면 (집결지에서의 동료나 친구) 안 만나려고 그러지, 연락을 안 할라고 그러지. 너 같으면 하겠냐? 안 하지. 나 같아도 안하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설사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저가 여기로 와서 만나지 내가 거기 가서 만나는 건 싫은 거야. 왜냐? 친구들도 그래. 내가 놓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은 거야. 친구라고 해봐야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다른 데서는 단절이 됐으니까. 이미 오면 혹시 얘기 중에 언연 중에 옆에 건물 사람들이 알게 될까, 애들이 올 때 옷차림이 이상하지는 않을까? 화장이나 편하게 하고 오면 어찌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글로 갈게' 차라리 내가 글로 가지는 게 된다니까”(백경옥, 2002년 “인터뷰”).
12.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에서 성판매 여성(‘윤락녀/창녀’ 등)이라는 사회적 호명은, “우리를 더럽게 보는”(박금자) 사회적 시선과 편견일 뿐 아니라, “이런 일 했다는 걸 알면 인간취급도 안하네!”(정미화) 사회적 태도이고, 때론 강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해도 경찰이 인정하

직접적인 낙인체험의 유무가 낙인의 두려움이나 적응의 정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낙인은 일상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지만, 실체가 없을 만큼 모호하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내재적인 낙인(internalized stigma)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추방'과 '도전' 사이: 이주의 의미와 서로 다른 영향력

집결지의 폐쇄는 모든 사례들에게 생활세계를 바꿔야 하는 생애사적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사례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¹³ 성관매 '일'을 그만두고 집결지를 떠난 지 약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볼 때, 황혜숙씨는 노후의 안정을 위한 '보험'의 의미로 선택한 은퇴 군인과의 결혼생활을 삶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맺어진 손님과의 관계의 연장으로 의미화 한다. 한편 고연주씨는 '토박이 섹스워커'에서 낯선 공간으로 추방된 '이방인'으로 힘든 모습을, 박금자씨는 성관매 일을 그만둔 후에도 늦은 밤 집결지를 거니는 '산책자'로, 정미화씨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변신에 능한 경계인'으로, 백경옥씨는 새로운 삶을 여는 '도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공간의 안팎을 넘나들며 살았는데, 개인의 차이는 경계 사이의 이동에 따른 축적된 시간의 산물로 요약될 수 있다.

'주류' 사회에 대한 거리감이나 적응 정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주류' 공간의 접촉경험과 비례한다. 즉 '나간' 경험이 많을수록, 성매매 공간에 머문 기간이 적을수록 '주류' 공간에 대한 거리감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적응의 차이는 스스로가

지 않는"(고연주) 차별로 경험되기도 했다.

13. [부록 1] 참조.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통제력’, 곧 공간에 따라 확보될 수 있는 자원과의 상관성을 시사한다. 낙인상황에 대한 대응방식, 전략에 있어서도 사회적 접촉이 적은 경우 ‘낙인’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존재하지만, ‘주류’ 공간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훈련된 자기전략을 가지고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공간통제력은 단지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삶의 지향과 생의 주도성의 문제로 집약된다. 황혜숙씨의 경우에서처럼 집결지에서 나간 경험이 많아도 자신이 삶의 주도성을 갖지 못하면 낙인의식과 각 공간에 대한 거리감도 크고, 적응도 힘들 수 있다.

이렇듯 이주의 의미와 적응 상태는 사례마다 다르고, 개인의 생애 국면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인다. 예컨대 성매매방지법이 막 시행되고 집결지 단속이 강화되었을 당시, 연구 참여자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당시 이들에게 집결지 폐쇄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집결지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고연주씨의 경우 성판매 일을 하는 당시에는 ‘섹스워커’(sex-worker)라는 용어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2002년 “인터뷰”)¹⁴ 시위 참여 등을 통해 성매매 방지법에 강하게 저항했다(2004년 “인터뷰”). 그러나 이후 전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을 해준 “여성부에게 감사”(2005년 “인터뷰”)를 표하며, 성판매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획기적인 변화”로 의미화 했다. 반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우울증 등 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는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라며 이주의 강제성과 어려움을 토로했다(2008년 “인터뷰”). 이후 남편과의 이혼과 재결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운전도 배우고 차도 사”는 “놀라운” 상황에 이르러, “언젠가는 떠나야 했던 곳”에서 벗어나 이주하여 “마음

14. 주로 집결지에서만 살아온 고연주씨에게 ‘섹스워커’라는 용어는 낙인에 ‘용감하게’ 저항할 수 있는 의미를 생산할 수 있었다. 반면 삶의 지향이 집결지밖에 있었던 백경옥씨 등 다른 생애사례들에게는 ‘섹스워커’라는 용어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 기쁜” 새로운 시도와 “성취들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한다(2012년 “인터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주의 의미는 상당히 양가적이다. 이주 생활을 표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답답함과 무기력함, 조심스러움, 불안감, 우울, 단절, 긴장, 침묵, 조심, 거짓, 낯섦, 새로움, 노력, 연습, 도전 등이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성관매 ‘일’을 그만두고 집결지 공간에서 이주했다는 사실에 대해 ‘떳떳함’과 자부심, 스스로의 변화에 자긍심을 갖는다. 또한 이주공간은, 그야말로 “사회,” “가정 동네”이며, 자신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때론 더 깨끗하게, 더 정숙하게. 남편/배우자에게 더 잘하는 등, 성역할의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정숙함이 훼손된’ 여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원미혜, 「‘성관매여성’ 섹슈얼리티의」 63-66). 또한 사회적으로 뒤쳐졌다는 자기 인식, 게으른 존재라는 낙인을 지우고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부지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가장 기초적인 일상인 “버스나 전철을 타는 일부터 배우는,” “아침부터 일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생활은 “사회인이 되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느끼게 되는 안정감도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한다. 낯선 관계에 노출되고 배우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자신의 삶에 상당한 도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며, 이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과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주 공간은 성관매 여성(‘창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우리와는 다른,” 적대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공존한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대감이 동시에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고연주씨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에서 살 때는 외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용산역 앞에 살았다고 하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그 건너편에 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사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했던 게 좀 쪽팔린” 것이 되고, 남의 이목과 평가의 눈은 곧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자신의 과거는 피하고 싶은 것이 된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활하던 당시 ‘성판매 여성’과 자신을 강하게 분리하며 외로움을 호소하던 백경옥씨는 막상 집결지를 떠난 이후 집결지 동료들과 자신을 ‘우리’로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⁵ 이주 후 수년간 가장 열성적으로 동료 모임을 이끄는 이도 백경옥씨이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식이든 긍정하는 방식이든, 이주와 적응의 과정은 ‘성판매 여성(“창녀”)’이라는 호명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그 정체성(과거)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순된 과정을 포함한다. 낯선 곳에서 자신이 집결지 출신의 여성이었음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의 의미는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집결지 공간에 대한 체험과 기억, 그리고 거기서 맺어진 관계들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

집결지라는 특정한 울타리에서 수십 년 살아온 이들의 역사 안에서, 현재 이주의 의미는 ‘추방’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사이에 있다. 집결지 폐쇄로 인해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불만을 표현했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나이듦에 따라 “아쉬움은 남지만 (집결지

15. 백경옥씨는 ‘본래의 자신’과 ‘성판매 여성’을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일관된 관점을 보여왔다(2002-04년). 가령 이 당시의 인터뷰에서 백경옥씨는 ‘그 사람들,’ ‘그들,’ ‘거기’ 등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언연중에 ‘그들’과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외는 대조적으로 2005년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일반인들과 못 섞여 사는 우리,”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잖아” 등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당시 구술자는 성매매방지법 반대시위에 적극 참가했다. 또한 집결지 폐쇄도 본격화된 이후 동료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집결지 동료들과 자신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과 자신을 분리될 수 없는 ‘우리’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라는 호명은, 무엇보다도 법과 정책이라는 외부자의 시선에 노출된 구술자가 자신을 ‘그들에 편입시켰던 것(강제된 ‘우리’)으로 보인다. 반면, 쉼터의 활동가로 취직한 2008년 이후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자신이 함께 하고 돕기를 희망하는 동료라는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보여주었다.

철거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떠나야 했던' 곳이라는 인식, “떠날 곳을 떠나 왔다는 안도감”도 존재한다. 그들이 “돈이 있어도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 (또는 ‘창녀’)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짓기의 힘이 연구 참여자들을 수십 년 동안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즉 집결지에서 머무는 것이나 추방이나 모두 그들에게는 강제된 것이었으며, 집결지 안에서의 삶이든 밖에서의 삶이든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인식으로, 이주의 의미는 더욱 복잡하게 구성한다.

이렇듯 이주의 개인적 의미의 변화와 복합성은 새로운 공간에서의 적응이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체험과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개인 간의 차이들은, 여성들의 삶이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경계에 전적으로 포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또 다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사이’ 공간의 가능성:¹⁶ 공동체와 교류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 사이에 놓인 자신들의 체험과 정체성으로 인해, 각각의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감각과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성매매 집결지는 “고향 같은 곳”(고연주), “마음 편한 곳”(박정숙), “먹고 살게 해 준 곳”(정미화)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백경옥), “어린 것들까지 깔보는 곳”(황혜숙)이기도 하다. 성매매 공간 경험의 시간적 축적은 황혜숙씨처럼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덧입혀지는 상흔의 축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고연주씨처럼 자신의 주도성을 확보

16. 여기서 ‘사이의 공간’이란, 새롭고 대안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분법적 관점에서의 ‘주류’ 공간이나 ‘성매매’ 공간이 아닌 그 사이의 ‘다른’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익숙해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안에서의 동료관계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의미를 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다양한 의미화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에 나가거나 외부자의 시선에 맞닥뜨리게 될 때,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과 기억은 낙인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의미화 된다. 정체성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긴장되고 가식적인’ 세상과 ‘나를 가장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의 뚜렷한 구분이다. 여기서 ‘원래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란, ‘주류’ 공간도 집결지의 물리적 공간도 아닌 동료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집결지 생활공간은 “지나가다 어느 집이나 쓱 들어가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박금자), “혼자만 먹으려고 김치를 담가본적 없을 정도로”(백경옥), “남편 눈치 보며 고추장, 된장을 잔뜩 담구어서 함께 나누는,”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살가운”(고연주)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삶을 이끌어온 곳이다.¹⁷ 이주 공간에 쉽게 적응하고 사교적으로 사람을 잘 사귀는 정미화씨에게도 동료 집단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의미화 되며, 그 집단에서만큼은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성판매 ‘일’이나 ‘주류’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성 수행이 때론 자기기만적이거나 자기 정체성의 배반을 강요했다면, 동료관계/공동체가 가진 편안함은 성판매 여성 또는 전형적인 ‘주류’ 여성 사이에서의 구분과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료관계/공동체는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다중적 주체인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나누고, 때론 다투고 화

17. 외부에서 볼 때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내부에서는 서로를 향해 활짝 열려진, 빈잡한 도시의 한복판에 섬처럼 존재하는 ‘시골’ 공동체 같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업주 없이 성을 파는 (‘독장사’) 특수성, 유리관 업소가 아닌 작은 방들이 밀집해있는 뒷골목(‘히빠리 골목’)이라는 특징이 반영된다.

해하면서, 낙인을 전복시키는 유머와 웃음을 생산하며, 특정한 '가면'을 쓰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적, 도덕적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주류' 공간의 '일반' 여성들 보다 더 많은 자유로움을 갖는다고 인식한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온 강한 생활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섹시함이나 정숙함, 능력 같은 전형적인 여성역할이나 가치가 아닌, 성실함과 의리, 유희 등 다양한 관계적 가치들이 통용되며, 전형적인 여성성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생산할 가능성을 현시한다.

이러한 동료들 간의 관계로 인해, 집결지 공간의 기억과 의미는 현재적이다. 생애사례 중 박정숙, 고연주, 백경옥씨의 경우는 성매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거지를 집결지(근처)에 두고 수년을 살았다. 집결지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 공동체는 물리적 기반을 잃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용산지역을 떠나서도 수년간 집결지에서 맺어진 관계를 준거삼아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동료집단/공동체는 성매매 공간도, '주류' 공간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으로 기능한다.¹⁸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사이'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집결지 관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고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상상할 수 없는 체험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 중 박정숙, 백경옥, 황혜숙씨가 참여하고 있는 '판도라 사진 모임'은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좀 더 확장된 대안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009년 1월 용산 성매매 집결지에서 시작된 판도라 모임은 연구 참여자들뿐 아니라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임이다.¹⁹ 이 모임에서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성들

18. 이들은 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주하여 모여 살거나, 예전처럼 일상적으로 만나지는 못해도 이사한 동료의 집에서 이전에 '화투방'에서 모이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19. '판도라 사진 모임'은 용산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기록하기 위해 2009년

이 자신의 현재 생활공간을 찍어 공유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모임에는 용산 이외의 다른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오롯이 혼자였던 체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변화된 삶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공유한다. 이 모임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친밀성을 나누는 친목모임인 동시에, 공적인 활동으로 의미화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홍콩에서 있었던) 사진 전시를 통한 ‘일반인’의 호응, 성매매 관련된 정책이나 모임의 향방에 관한 토론과 발언 등은 자신을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게 한다. 이들은 이 작은 모임에서의 친밀성의 교류와 외부적 승인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서서히 획득해간다. 특히 사진 작업을 통해 획득한 표현능력과 이에 대한 외부인의 피드백 및 지속적인 상호관계는, 자신의 과거를 ‘건강하게’ 재해석하는 역량강화(empowerment)의 과정을 포함하며, 스스로를 사회적 주체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낙인에 대한 민감성이 누구보다도 높았던 백경옥씨 사례에서 발견된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적응 과정이 ‘주류’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상황에 놓였던 반면,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생활 관리사로 일했던 백경옥씨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백경옥씨의 활동가라는 위치는 자신의 과거 체험이 새로운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공간 안에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쉼터의 탈성매매 여성

1월에 시작되었고, 이주가 완료된 이후인 2013년 봄까지 이어졌다. 첫 해에는 격주로 모임을 가졌고, 2009년 10월에는 연구 참여자들도 함께 참석하는 미국 순회 전시를 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참여자 대부분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2-3달에 1번씩, 1박2일의 워크숍 형태로 모임이 이루어졌다(총 15-20명 규모).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이 모임은 처음에는 집결지의 모습을 기록했지만, 이주 이후에는 이주한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찍어 공유하는 모임으로 정착되었다. 이 모임은 집결지에서 생활한 연구 참여자들 뿐 아니라, 연구자, 활동가 등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으로 정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은의 논문을 보라.

들은 백경옥씨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고 조언받길 원한다. 그녀가 쉽터 입소자들의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다. 쉽터의 실무자들 역시 그녀에게 사업을 의논하고, 성관매 여성의 입장에서 쉽터 사업이 어떤 지를 그녀에게 점검받는다. 오랫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당당함, 독립심, 분명한 의사전달 능력과 말투, 위기 상황에 대한 뛰어난 대처능력, 유머감각 등은 동료 실무자들이 칭찬하는 백경옥씨의 탁월함이다.

이러한 백경옥씨의 모습은 낯선 공간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다수의 연구참여자와 똑같은 사뭇 다르다. 최소한 이 공간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도 비난받지 않으리라는 당당함, 자신의 처지를 기꺼이 이해하는 다른 여성들의 지지와 지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전 경험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쉽터'는, 성매매 공간의 문화와 '주류' 사회가 만나는 '접경지대'로 기능한다. 사실, 쉽터와 실무자들의 위치는 성관매 여성과의 일상적인 접촉과 상호교류를 통해 공고한 경계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들은 성관매 여성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통해 부당한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판도라 사진모임'이나 쉽터와 같은 공간은 경계지워진 두 세계의 '사이'의 공간,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제 3의' 행위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공간들이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관매 여성'이라는 존재를 사회적 지평에서 이해하고 재평가하는 행위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자신의 '과거'와 역사를 성찰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일반인') 역시 그들의 문화와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밝혀진 바, 주류 사회에서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은 '자원'뿐 아니라 '삶의 주도성'에도 있다. 삶의 주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원은 참여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큰 의미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는 성판매 여성의 차이와 과거의 역사를 지우는 일방적인 적응을 당연시하는 기존의 지원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뚜렷하게 경계 지워진 사회 안에서, 이러한 ‘사이 공간’(in-between space)²⁰ 들은 성판매 여성의 체험이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되고 교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의 정박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경계의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관계”(발렌타인 379)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탈성매매 여성들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주자의 의미와 적응의 문제들을 표피적이고 파편적으로 다루어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용산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이주 체험을 구술 생애사 분석과 장시간의 참여관찰(6-11년)을 통해 ‘차이와 과정’의 관점으로 고찰하고, ‘제 3의 공간’ 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먼저,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적 사회적 경계 안에서 수십 년 간(10-30년) 살아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주는 생활세계 전반을 바꾸는 변혁의 사건으로, 새로운 적응이라는 생애사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집결지 밖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성매

20. 안잘두이는 ‘중간 지대 혹은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의미하는 인디언 언어의 ‘네판틀라’(nepantla)를 제안한다. 네판틀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보다는 “기존의 사상과 신념을 심문하며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고 세계관을 바꾸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정신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네판틀라라(nepantlera)는 인종적 분할선이나 공고한 정체성의 뒤에 머물지 않고 그들 속에 난 틈새 사이로 오가면서, 타자의 이해와 인정을 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중시하는 페미니스트 주체를 표현한 것인데, 그 핵심은 ‘연결주의자’의 정신에 있다(노승희 270-72).

매 집결지에서의 삶은 사회적 경계만큼이나 외부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생활 리듬, 친분관계, 여가와 놀이, 이용 가능한 자원, 경험의 축적, 정체성, 가치관 등 일상을 구조화하는 다양한 차이들이 외부와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과거가 비난받을 수 있는 낮은 공간에서의 적응이란, 자신의 과거와 차이를 지우고 '주류' 공간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기 성실성의 훼손과 정체성의 갈등을 야기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주의 의미는 자신이 살던 공간으로부터의 '추방'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사이에 존재하고, 적응의 어려움은 개인의 생애 국면에 따라, 체험의 축적과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각기 다른 무게와 의미로 작용한다. 이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적응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는 과정임을 드러내며, 연구 참여자들이 주어졌던 경계짓기에 전적으로 포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또 다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집결지 여성들의 이주 및 적응의 과정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를 포함하며, 이웃, 동료 등 관계 안에서의 친밀성과 소통, 소속감과 사회적 승인에 의해 지워진다. 이는 성매매 공간에 머물거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는 추동력이 단지 보상 체계 등의 합리적 목적이나 내면화된 규범체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판매 경험 여성의 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 귀속감과 같은 정체성의 정서적인 차원, 공동체와 관계들, 문화적 차이, 과거 체험의 현재적 의미, 삶의 주도성 등의 문제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이들을 구별 짓는 권력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권력의 틈새를 오가는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탐색하고, 차이들의 소통과 친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여성주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사이 공간들은 '주류' 사회 또는 성매매 집

결지라는 특정한 공간 정체성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삶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때, 여성에 대한 진정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낙인의 탈-체현화(de-embodiment)가 가능함을 시사한다.²¹

21. 본 연구는 중·노년층인 탈성매매 성매매 여성들의 이주 체험을 다룬 것으로 이들의 생애사는 구체적인 '개인의 체험'이자 '이야기'이라는 점에서, 전체 성판매 여성들의 체험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개인 생애사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을 담고 있는 '유형화된 사례'로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구별짓기와 성판매 여성의 체험을 타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부록 1] 생애사례 소개

(1) 황혜숙씨의 생애사는 엄격한 기독교적 가족을 성장배경으로 하여, 친족 내 성폭력과 낙태로 인한 가출과 인신매매, 수용소(‘부녀자보호소’)입소, 동성애와 이성애 결혼 등의 생애여정에서 주도적 삶이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월만 가라, 시간만 가라”라는 표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평가와 더불어 현재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드러낸다. 구술자의 이야기에서 가출, 인신매매, 성판매, 동성애, 성 불감증,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생애체험은 과거 친족 내 성폭력과 낙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이자, 어머니의 시선에 갇혀져 그것에 저항하거나 타협해 온 구술자의 생애사적 노력과 그 좌절의 결과로 의미화 된다. 구술자는 “어린 것들부터 반말부터 까고 보는” 성구매자의 태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으로 생활했으며 탈주와 재유입을 반복하며 살았다. 2008년 인터뷰 당시 구술자는 결혼생활에 대해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미래의 경제적 보장과 사회적 시선(어머니의 기대)으로부터 몇몇함을 주는 선택으로 의미화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말 한마디 못 걸 정도로” 지역주민과 단절되고 고립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성불감증의 몸과 동성애적 욕망을 지닌 구술자에게 결혼생활은 “일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중요한 조건으로 맺어진 이성애 관계(손님)의 연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보였다. 이러한 복수적 정체성과 상흔들로 가득한 내면의 공간에서 내부 균열과의 힘겨운 사투는, 구술자가 ‘주류’사회에 있든, 성매매 공간에 있든 그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는 장애로 존재한다. 사회적 통념은 ‘결혼/성매매’를 구별 짓지만, 어느 공간에서든 주도성을 상실한 구술자에게 두 공간은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생존을 위한 ‘빈 껍질’의 공간이다. 2006년 지방 대도시로 이사한 직후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극에 달했다. 구술자의 고립감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성폭력의 상흔과 실현되지 못한 동성애 욕망과 뒤엉켜 있으며, ‘주류’ 사회에 대한 더 큰 거리감을 생산했다. 그러나 2011년 여동생이 근처로 이사를

오고 자신을 “살갑게 챙기는” 남편과의 관계호전 등 지속적인 관계에서 점차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두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와 동료를 만나거나 모임(‘판도라’ 사진모임)을 갖는 것이 구술자의 일상에 가장 큰 부분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2) 백경옥씨의 생애사는 20여 년간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쉽터’라는 공간에서 삶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개인의 체험을 보여준다. 생애사를 통해 드러나는 백경옥씨는 낙인의식이 강하고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중요한 삶의 문제로 구성하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주류’ 공간에서의 적응에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황혜숙씨와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최소비교의 사례이다. 그러나 황혜숙씨가 자신의 주도적 삶의 실패를 관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백경옥씨는 적극적으로 삶의 주도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02년 인터뷰의 초기 이야기에서 구술자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부도로 쓰러진 후 광고전단지 속아 집결지에 유입되는 과정, 현재 ‘성판매 여성과 ‘본래의 자기’상이 갈등하는 상황,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나’라는 생애사적 관점으로 서술하였다. 그에게 성매매 집결지/‘주류’ 공간은 확연히 구분되는 공간이다. 구술자의 집결지에서 일상은 ‘비밀’이 밝혀지지 않도록 친구와의 만남이나 외출을 극히 꺼리고, 집결지에서 손님과 일체 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등 미래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며 생활했다. 구술자는 언제나 떠날 생각으로 살았지만 약 20년 정도를 성매매 집결지에서 살았다. 이러한 구술자는 집결지 폐쇄 이후 ‘쉽터’라는 공간에서 생활관리사로 일하게 됨으로써 중요한 생애사적 전환을 맞는다. 구술자는 버스 타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야 하는 자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집결지에서 삶과 현재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사적 관점은 집결지에서의 삶에 대한 자기반성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공주처럼’ 자라 ‘할 줄

이는 '계' 없었던 시기를 포함한, 전체 생애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생애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쉼터의 생활관리사로 일하던 2008년 인터뷰에서는 “동료”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집결지 관계들을 이해하고 ‘주류’ 사회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가며 새롭게 도전하는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술자의 전업의 과정은 단지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새롭게 만나고 자원으로 전환해 가는, 새로운 삶에 도전과 전환을 의미한다. 즉 ‘성매매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가면이거나 치욕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집결지 동료들을 ‘우리’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자신의 전체 생애를 성찰하고 새로운 자원을 형성해가는 두 번째 생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경옥씨 사례는 성매매 공간을 떠나 ‘주류’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는 다른 사례들과의 최대비교 사례이다. 이러한 구술자의 체험은 낙인의식이 강한 경우에도, 주류/성매매 공간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술자는 2013년 현재, 자신의 임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동거중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3) 고연주씨 사례는 ‘주류’ 공간에서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부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백경옥, 황혜숙씨와 차이가 있다. 고연주씨 사례는 1970년대 초등학교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서울역 근처에서의 노숙과 ‘앵벌이’로, 친척집(‘더부살이’)으로, 남자친구에 의해 성매매 공간으로, 수용소를 거쳐 봉제공장으로, 다시 성매매 공간에 들어와 30년 동안을 안착하며 살다가 성매매방지법과 집결지 폐쇄 정책이후 낯선 공간(가정 동네)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유입 당시 다른 사회적 자원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구술자에게 성매매 집결지는 “어린 나이에 주인 눈치 보며,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행”인 다

른 여러 생존 공간 중에 하나로 의미화 되었다. 성매매 공간에서 약 30년을 살아온 자신을 ‘토박이 섹스워커’로 정체화하고자 하는 고연주씨의 생애이야기의 주제는 주로 집결지 내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2002년 인터뷰에서 구술자의 표현은 ‘자존심 굽히지 않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였다. 구술자가 사회적 위계에 대한 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의 ‘일’과 관계에 익숙한 만큼 나름대로 공간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술자에게 집결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일터나 주거공간을 넘어서 ‘집’(home)으로 의미화 된다. 2002년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접한 ‘섹스워커’라는 용어는 “나는 섹스워커다”라고 어디서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해준 획기적 사건으로 기억하며, 성매매 방지법 시행직후 시위에 적극 참석하기도 했다. 용산 집결지 철거 분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 결혼하여 집결지역에서 지내다가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겨 정착하는 과정은 생애사적인 큰 변화로 체험되고 있지만, 구술자는 여전히 집결지를 “고향”으로 이주 공간을 “우리가 안 살던 곳”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이전 체험과의 단절과 상실감,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고통의 체험임을 표현한다. ‘집결지’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구술자에게 우울증과 자살충동, 알콜 의존 등의 증후들은 고연주씨의 이러한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말해준다. 집결지를 중심으로 30년을 살아온 고연주씨의 사례는, 삶의 지향이 집결지 밖에 있지 않은 경우의 낙인의 영향력과 ‘주류’ 사회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오랜기간 자신의 삶을 담아오던 장소소실에 따른 상실감과 어려움을 보여준다. 구술자는 남편과의 이혼과 재결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공공근로, 식당 일 등을 하며 지내고 있다.

(4) 정미화씨는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이런 데(집결지)만큼은 오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생애사적 노력과 집결지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

던 이유로 가난과 낙인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생애 큰 전환은 13년의 결혼생활을 접고 집결지에 재유입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를 문제 삼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암에 걸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자신의 삶과 자유를 유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선택으로 의미화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사에는 타고난,' '영리하고 사교적인 성격,'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생활력' 등 자신에 대한 반복적 이미지를 통해 삶의 주도성을 드러낸다. 구술자에게 성매매 집결지는 친밀한 장소이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다양하게 자원화 할 줄 아는 구술자의 관심은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았던 구술자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변신에 능한 경계인'이자, 재능 있는 '이야기꾼'이기도 한 구술자는 그러한 낙인을 몸에 체현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적절히 이용할 줄 안다. 낙인찍힌 비운의 주인공으로서 드라마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구술자의 서사방식은 그러한 서사 정체성에 가까운 구술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사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며 살아 온 정미화씨 사례는, 낙인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자기의 삶의 역동을 생산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박금자씨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삶,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죄 많은 나의 삶'이라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생애사적 관점을 보여준다. "나쁜 짓, 도둑질만 빼고, 다해 본" 자신의 특별한 삶에 대한 생애사적 관점은, '삶의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황혜숙씨와 최대비교 사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출, 성매매 유입, 탈성매매 등 모든 생애 과정은 구술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언어화된다. 여기서 성매매 집결지는 동료 '아가씨'와의 동성애, 손님(도둑), 주변 건달, 15세 연하 남성, "술꾼"인 남편 등 사적인 관계를 잉태하고 시작하는 공간이자, 때론 사적 관계와 성판매 '일'의 병행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공급받는 공간으로 의미화 되며, 탈성매매

후 집결지를 떠났을 때도 구술자는 꾸준히 동료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구술자의 전체적인 생애체험은, 성판매 ‘일’과 사적인 성애적 관계 간에, 동성애/이성에 정체성 간에, 집결지 안팎과 지역 간의 이동이, 마치 ‘퀘도를 이탈한 별동별’ 같은 자유로움의 단면을 보여준다. 퀘도에서의 ‘이탈’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주어진 삶 너머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제한성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다. 10여년째 새벽 3시가 되면 집결지를 홀로 “놀이터 삼아 산책하는” 구술자에게, 결혼이나 탈성매매 과정 역시도 특별한 생애사적 전환을 의미하지 않으며, 낙인 또한 저항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술자에게 낙인은 그저 주어진 삶의 일부로, 삶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금자씨와 정미화씨의 사례는 앞서 고연주씨를 포함한 3명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주류’ 사회에 대한 강한 거리감이나 적응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고연주와 마찬가지로 박금자, 정미화씨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내재화된 낙인(internalized stigma) 작용에 의한 자기 정체성의 갈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황혜숙, 백경옥씨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집결지에서 보다는 밖에서 산 기간이 더 길며 집결지에서 맺어진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공간을 넘나들며 살았다. 박금자씨는 “주부,” 정미화씨는 “애 엄마”라는 자기표상을 가지며, 집결지의 의미 역시 “나를 제일 알아주는 곳”(정미화), “놀이터”(박금자)로 공존시키며 양쪽 공간 모두를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의미화 한다. 그러나 박금자씨는 삶의 폭이 집결지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정미화씨는 낮은 공간을 자기 친화적으로 만드는 사교성으로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살아왔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미화씨는 나머지 4명의 사례들과 최대비교 사례라 할 수 있다.

Works Cited

- Chungcheongnam-do Yeoseongjeongchaekgaebawon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Tal Seongmaemae Yeoseongui Hyogwajeok Jahwareul Wihan Jeongchaekbangan [Policy Plan to Help Women Who Used to be in Sex Trafficking in Chungcheongnam-do Support Themselves Effectively, 충남 탈 성매매 여성의 효과적인 자활을 위한 정책방안]." 2011. Print.
- Ham, Byeong-Ju [함병주]. "Uuljeung Hwanjaui Nagin Jigage Gwanhan Il Yeongu [Study on Depressed Patients' Recognition of Brand, 우울증 환자의 낙인 지각에 관한 일 연구]." *Uul · Joulbyeong* [Depression, Bi-polar Disorder, 우울 · 조울병] 2.4 (2004): 237-44. Print.
- Heo, Ra-Geum. [허라금]. *Wonchigui Yullieseo Yeoseongjuui Yulliro* [From the Ethics of Principles to That of Feminism,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Seoul [서울]: Philosophy and Reality [철학과 현실], 2004. Print.
- Hubbard, Philip. *Sex and the City: Geographies of Prostitution in the Urban West*. Farnham: Ashgate Publishing, 1999. Print.
- Hwang, Gyeong-Ran [황경란]. "Talseongmaemae Yeoseongui Ilchajeok Jahwaljiwonjeongchaek Gyeongheome Gwanhan Narrative Tamgu: Seongmaemae Jipgyeolji Hyeonjanggineungganghwasaeobeul Jungsimeuro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rimary Policy to Help Women Who Used to be in Self Trafficking Support Themselves: On the Plan to Improve on-the-Spot Function of Sex Trafficking District, 탈성매매 여성의 일차적 자활지원정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중심으로]."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2. Print.
- Hwang, Jeong-Im [황정임]. "Seongmaemae Yeoseongui 'Jahwal'jiwon Jeongchaegae daehan Jeon [Proposal to Policy for Helping Women in Sex Trafficking Support Themselves,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Hwanghaemunhwa* [Hwanghae Review, 황해문화] 46 (2004): 82-95. Print.
- Kim, Hyeon-Seon [김현선]. "Seongmaemaeui Pongnyeokjeok Teukseonggw Seongmaemaepihaeyeoseongui Oesang Hu Stress Jangae [Violent Features of Sex Trafficking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성매

- 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 [성공회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2002. Print.
- Kim, In-Suk [김인숙]. *Seongmaemaepihaeja Jiwonchegyee Gaeseonbangan [Plan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Seoul [서울: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Print.
- _____. “Siseolgeoju 10dae Seongmaemaepihaeyeoseongui Jahwal Gwajeong [Self-Support Process of Teenage Female Victims of Self Trafficking Residing in Facilities,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Hangugadongbokjihak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한국아동복지학]* 30 (2009): 133-57. Print.
- Kim, Jeong-Seon [김정선]. “Philippine Gyeolhon Iju Yeoseongui Gwisokui Jeongchihak [Politics of Belonging of Philippine Immigrant Women Who Married Koreans,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의 정치학].” Diss. Seoul [서울: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2009. Print.
- Kim, Mi-Hyeon [김미현]. “Tajau Yeokseol: Talbukja Soseoreul Jungsimuro [Paradox of others: On Novels of North Korean Defectors, 타자의 역설: 탈북자 소설을 중심으로].” *Ewha Womans Univ. Talgyeonggyeinmunhak Yeongudan Gukjehaksuldaehoe Jaryojip: Taja Dasi Wichijitgi: Tajau Munhwajeongchihak [Proceedings of Ewha Womans Univ. Trans-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Replacing Others: Cultural Politics of Others,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 연구단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타자 다시 위치 짓기: 타자의 문화정치학]*. Ed. Talgyeonggye Inmunhak Yeongudan [Trans-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 Seoul [서울: Ewhainmungwahakwon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이화인문과학원], 2009. 401-20. Print.
- Kim, So-Yeon [김소연]. “Seongmaemae Hyeonjangeseoui Gyeongheomi Talseongmaemae Yeoseongui Jeongsingeeongange Michineun Yeonghyange Gwanhan Yeongu [Study on the Influence of On-the-Spot-Experiences of the Mental Health of Women Who Used to Work for Sex Trafficking, 성매매 현장에서의 경험이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 [이화여자대

- 학교 여성학과], 2004. Print.
- Lee, Geun-Moo, and Eun-joo Yoo [이근무, 유은주]. “Seongmaemae Yeoseongdeurui Tal Seongmaemae Jeohaeyoine Gwanhan Yeongu [Study on the Reasons that Prohibits Women in Sex Trafficking from Getting Out of the Business,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Hanguksaheobokjiha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학] 58.2 (2006): 5-31. Print.
- Lee, Hyun-Joo [이현주]. “Seongpanmae Yeoseongui Jahwalgwajeonge Gwanhan Yeongu: Jipgyeolji Jahwaljiwonsaeop Chamyeo Jeon · Hu Gyeongheomeul Jungsimeuro [Study on Self-support of Women in Sex Trafficking: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o Help the Women in Sex Trafficking District Support Themselves, 성관매 여성의 자활과정에 관한 연구: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참여 전 · 후 경험을 중심으로.]”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2010. Print.
- Lee, In-Suk [이인숙]. “Seongpanmae Yeoseongui Jaeyuip Gyeongheomgwa Jipgyeolji Jahwaljiwonsaeobe Gwanhan Yeongu [Study on the Experience of Women Who Returns to the Sex Trafficking and the Program to Help the Women in Sex Trafficking District Support Themselves, 성관매 여성의 재유입 경험과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2009. Print.
- Lee, Kyeong-Eun [이경은]. “Documentary Sajinjageopeul Tonghan Tajahwadoen Jipdanui ‘Juches SeongJange Gwanhan Yeongu: Yongsan Seongmaemaejipgyulgi Yeoseongdeului Sajinjageopeul Jungsimeuro [Study on the Growth of ‘Subject’ of the Group Classified as Others through Documentary Photo-Works: On the Photo-Works of Women in Yongsan Sex Trafficking District, 다큐멘터리 사진작업을 통한 타자화된 집단의 ‘주체’ 성장에 관한 연구: 용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사진작업을 중심으로.]”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2012. Print.
- Lee, Moo-Seok [이무석]. “Jeongsinbunyeolbyeong Hwanjau Nagine Yeonghyangeul Juneun Yoin [Influence Factors on the Brand of Schizophrenic Patient, 정신분열병 환자의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Singyeong Jungsin Hakhoe* [Psychology Investigation, 신경정신학회] 41.6

- (2002): 1185-96. Print.
- Magdalena Gongdongchae Yonggamhan Yeoseongyeonguso [Magdalena Community the Courageous Women Research Center, 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Gyeonggyeui Chai·Sai·Teumsae [Difference, Gap, and Crack of Border*, 경계의 차이 · 사이 · 틈새]. Seoul [서울: Greenbee [그린비], 2007. Print.
- _____. *Bulgeun Velvet Album Sogui Yeoindeul: Yongsan Seongmaemae Jipgyeolji Salme Gwanhan Bogoseo [Women in Red Velvet Album: Report on the lives of Yongsan Red-light District, 붉은 벨벳 앨범 속의 여인들: 용산 성매매 집결지 삶에 관한 보고서]*. Seoul [서울: Greenbee [그린비], 2007. Print.
- No, Seung-Hui [노승희]. “Gloria Anjaldua: Gyeonggyeseon Eomneun Gyeonggyejidaereul Saragagi [Gloria Anjaldua: Living in the Borderland without Borderline, 글로리아 안잘두아: 경계선 없는 경계 지대를 살아가기].” *Yeolseongiron [Wo/man Theories, 여/성이론]* 11 (2004): 257-72. Print.
- Park, Su-Hyuk and In-Gul Song [박수혁, 송인걸]. “Jipchangchon Itdeon Georiro Aiwa Byeoruksijang, Matjip Nadeuri [Picnic to the Flea Markets and the Restaurants in the Streets Once Filled with Red-Lights, 집창촌 있던 거리로 아이와 벼룩시장, 맛집 나들이].” *Hankyoreh [한겨레]* 14 Apr. 2014: A14. Print.
- Seo, Gyeong-Sik [서경식]. *Diaspora Gihaeng: Chubangdanghan Jaui Siseon [Journey to Diaspora: Gaze of the Dispossessed*,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된 자의 시선]. Trans. Kim Hye-Sin [김혜신]. Seoul [서울: Dolbegae [돌베개], 2008. Print.
- Song, Gwanjae, Jae-Chang Lee, and Yeong-O Hong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Sahoejeok Ojeomboyujadeure Daehan Pyeongyeongwa Chabyeol Mit Jajongame Gwanhanyeongu: Jichejangaein Mit Yullangnyeoreul Jungsimeuro [Study on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of People Who have Social Stigmas,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연구: 지체 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Hanguksimnihakhoeji: Sahoemunj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al Problem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2001): 119-32. Print
- Uh, Sun-Yeol [우순열]. “Talseongmaemae Yeoseongui Jahwaljiwon Jeongchaegae Daehan Yeoseongjuuijeok Yeongu [Feminist Study on

- the Policies for Self-Support of Women Used to Be in Sex Trafficking Business,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MA thesis. Daegu [대구]: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Kyemyung Univ.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2006. Print.
- Valentine, Jill [발렌타인, 질]. *Sahoejirihak*. [Social Geography, 사회지리학]. Trans. Park Kyung-Hwan [박경환]. Seoul [서울]: Nonhyeong [논형출판사], 2009. Print.
- Won, Mi-Hye [원미혜]. “Seong Panmae Yeoseong’ui Saenggaechaeum Yeongu: Gyochajeok Seong Wigyeui Sigongganjeok Jakyonggul Jungsimeuro [A Life History Research of Women Who Sell Sex: The Temporal Spatial Operationalization of Intersectional Sex Hierarchy,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Diss. Seoul [서울]: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2010. Print.
- . “Seongpanmaeyeoseong’ Sexualityui Gongganjeok Suhaenggwa Jeongchaseongui (Jae)guseong [Spatial Performance of Sexuality and (Re)construction of Identity: Focusing on Experiences of Middle and Older Aged Women in Red-light Districts, ‘성판매여성’ 섹슈얼리티의 공간적 수행과 정체성의 (재)구성].” *Yeoseonghak Nonjib* [Collection of Women’s Studies, 여성학 논집]. Seoul [서울]: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Women’s Institute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8.1 (2011): 43-78. Print.
- Yang, Hwa-Sik [양화식]. “Naginiron [Labeling Theory, 낙인이론].”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Gyojeong* [Correction, 교정] 291 (2000): 12-30. Print.
- Yeoseongmunhwaironyeonguso [Go-Feminist, 여성문화이론연구소]. *Yeo/Seongiron* [Wol/man Theory, 여/성이론] 13.2 (2006). Print.

Abstract

Between Invisible Boundaries: Focusing on the Migrant Experience of Middle- and Older-Aged Women of Yongsan Red-Light District

Mi-Hae WON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This study examines the migrant experience of women of the Yongsan red-light district and its significance through life-history methodology and long-term participatory observation. First, migration is an event that transforms one's whole life and stands between the *expulsion* from one's regular life space and the *challenge* of a new life.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mainstream* space in which one's past or history can be denounced, includes not only financial problems but those of identity and cultural conflict, among others, and is supported by the intimacy, communication, a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approval in the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colleagues, and other people. These women's community brings forwar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between space*, suggesting that a genuine empowerment and de-embodiment of boundaries is possible not through an one-way adaptation or support but through the realization of mutual exchange.

Keywords: prostitution, other, migration, boundary, stigma, life-history

Mi-Hae WON is head of the Seoul Resource Center for Young Women. She has carried out various sorts of research and activities such as studies on prostitution, lectures on woman's studies, and policies for women. She has also worked with the Korean Woman's Institute at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gdalene House, a facility for supporting female victims of abus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men and Family Policy

www.kci.go.kr

Division, and more. She has published around 10 volumes of books including *Lecture on Sexuality* and 15 papers including “Study on the Actual Health Conditions of Female Teenage Runaways.”

wonmh@seoul.go.kr

Received: 30 April 2014
Reviewed: 16 May 2014
Accepted: 28 June 2014